

월간 내과 Magazine



대한내과의사회
KOREAN PHYSICIANS' ASSOCIATION

RENEWAL 2025.3(vol 5.)



Contents

• 부산시내과의사회장 인사말	001 page
• 부산시내과의사회 이사회 명단	002 page
• 칼럼 골퍼들의 염원, 메이저 대회의 무궁무진한 매력	003 page
• 칼럼 아는 만큼 들린다 - 재밌는 클래식 이야기 : 슈만의 열렬한 사랑 고백 - 헌정(Widmung) 소프라노 강수정	009 page
• 점점 더 강화되는 마약류 관리	011 page
• 공지사항	016 page
• 의료법·고시(급여기준) 신설/변경	028 page
• 대한내과의사회 및 관련학회 일정	035 page
• 대한내과의사회 전국 임원 워크샵	036 page
• 한국건강검진학회 제9회 춘계학술대회	039 page
• 대한내과의사회 제17회 춘계학술대회	042 page
• 지역의사회 소개 - 부산시내과의사회가 추천하는 부산의 매력	045 page
• 회원 안내문	046 page
• 성명서	047 page
• 퀴즈	050 page

부산시내과의사회장 인사말



대한내과의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시내과의사회 회장 정유석입니다.

늦었지만 ‘월간내과 Magazine’의 재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소중한 지면을 통해 부산시내과의사회를 소개하고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어 영광입니다. 우리 내과회원님들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서, 더욱 발전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최근 의료계를 둘러싼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과 의료 시스템 변화로 인해 많은 회원분들께서 걱정과 불안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내과의료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원가와 병원 모두가

부담을 안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 단결하고, 하나 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내과의사회는 1997년대부터 지역 내 내과전문의들의 학술적 교류와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 500여 명 이상의 회원들이 함께하며, 학술 활동과 정책 대응, 회원 복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매년 춘·추계 학술대회, 내시경 집담회, 초음파 집담회, 초음파 아카데미(핸즈온위주로 연 8회내외)등을 개최하여 최신 의학 정보를 공유하고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정책과 제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소통창구를 활성화하여 회원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료계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내과의 위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대한내과의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회원 여러분의 권익을 지키는 길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몹시도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새로운 봄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과 병원에 늘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부산시내과의사회 회장 **정유석** 올림



부산시내과의사회 이사회 명단

구분	직위	이름	병원	전화번호	E-mail
1	회장	정유석	초록내과의원	051-715-9306	ys3jeong@naver.com
2	부회장(보험)	김성목	명인내과의원	051-321-2119	medmosquito@naver.com
3	부회장(정책)	장원식	인사랑내과영상의학과의원	051-891-2119	wkschang6656@gmail.com
4	부회장(사업)	안진광	홍인내과의원	051-206-6700	prepulsi@hanmail.net
5	부회장(학술)	곽경록	숨편한 곽내과의원	051-802-7588	imedical@daum.net
6	총무이사	이준희	류마이준희내과의원	051-715-8275	drleejunhee@hanmail.net
7	재무이사	이정남	하단속시원내과의원	051-204-2011	gattaca13@daum.net
8	기획이사	박기태	바름내과의원	051-558-5608	peter86@naver.com
9	사업이사	박성오	가까운내과의원	051-710-2788	lacidem@naver.com
10	학술이사	정명교	인사랑내과영상의학과의원	051-891-2119	erjmk1@hanmail.net
11	학술이사	장형하	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의원	051-554-1088	fireflyoflake@gmail.com
12	학술이사	우재곤	우재곤내과의원	051-633-7740	wtylor@naver.com
13	학술이사	박민기	박민기내과의원	051-864-8275	loveulove@hanmail.net
14	학술이사	이욱	김용기내과의원	051-245-7100	Wg0405@gmail.com
15	공보이사	김승만	선내과의원	051-898-2233	magmasm@hanmail.net
16	의무이사	김종윤	참조은내과의원	051-714-7119	kmedic@gmail.com
17	보험이사	정동일	명지 정내과의원	051-203-6633	yaght2015@gmail.com
18	정보통신이사	이희룡	이신내과의원	051-715-5501	dlgm1ftd123@gmail.com
19	법제이사	강지훈	참좋은내과의원	051-947-1000	pnudoctor@naver.com
20	정책이사	구상건	생명선의원	051-325-0119	desireloving@hanmail.net
21	검진이사	남경식	명지내과의원	051-271-7533	nks9989@naver.com

칼럼

골퍼들의 염원, 메이저 대회의 무궁무진한 매력

이창희 프로(전 국가대표 프로 골퍼)

출처: (주)보령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골프 대회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골프 시즌이 시작되는 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골프 대회에 대해 알아보자.





세계적인 골프 메이저 대회

골프 대회 중 제일 크고 전통이 있는 4대 메이저 대회는 ‘마스터스’, ‘US 오픈’, ‘PGA 챔피언십’, ‘디 오픈’이 있다. 메이저 대회들은 저마다 독특한 매력과 역사를 지니고 있다.

1년 중 가장 먼저 개최되는 ‘마스터스’는 1934년 처음으로 시작됐다. 19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시합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프로 골퍼들이 참가와 우승을 목표로 하며,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그린 재킷을 입는 것을 꿈으로 품고 있다. 한국 선수로는 최경주 선수가 2004년에 3위를 기록한 바 있다.

오픈 대회는 아마추어, 프로, 나이, 국적 상관없이 모두 참가할 수 있는 대회로 인기가 많다. 그중에서 USGA 미국에서 주최하는 ‘US 오픈’은 12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대회이다. 50년 이상 된 컨트리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것이 특징인데, 코스가 어려운 것으로 유명하다. US 오픈은 아마추어 골퍼가 우승할 경우 상금이 없고, 프로 선수가 우승할 경우만 상금이 있다.

미국 PGA가 주관하는 ‘PGA 챔피언십’은 신생 골프장에서 개최가 되며, 투어 성적에 따라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1916년 백화점 관리자였던 로드먼 워너 메이커가 유명 골퍼 선수, 유명 인사 35명을 초청해 상금 2,500달러를 걸고 뉴욕 태플로 클럽에서 개최한 대회가 시초가 되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퍼 선수들이 출전하는 시합으로, 인생에서 한 번도 어렵다는 PGA 챔피언십을 7차례나 우승한 골퍼 잭 니클라우스는 대회 최대 우승 기록 보유자이자 전설로 남아있다.

브리티시 오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디 오픈’은 1860년에 영국에서 창설되어 지금까지 이어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 골프 대회이다. 바람과 날씨 영향을 많이 받으며 시합이 이루어 지는데 영국 오픈 시합 코스는 바닷가 코스 링크스를 지정하는 것이 전통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승자에게 우승컵이 아닌 ‘클라레 저그’라는 은제 주전자가 수여하는 전통이 있다.

남자 4대 메이저 대회



마스터스 토너먼트(The Masters Tournament)

마스터스는 골프 시즌의 화려한 개막을 알리는 대회로,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미국의 봄을 맞이한다. 초대제로 진행되는 독특한 스타일이 더해져 골프 팬들에게 특별한 기억을 선사한다.

개최지 | 미국 조지아주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 클럽

개최 시기 | 4월 첫 주 주말

특이 사항 | 골프 시즌의 첫 번째 메이저로서 우승자에게 전통적인 그린 재킷이 수여되는 대회로 유명



미국 오픈 챔피언십(US Open Championship)

어려운 코스 설정으로 유명한 미국 오픈은 미국 골프 협회의 주최로 열리며,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대회 중 하나로 꼽힌다. 뜨거운 6월 중순, 선수들은 힘들게 준비된 코스를 정복하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린다.

개최지 | 미국 내 다양한 골프 코스에서 개최

개최 시기 | 6월 중순

특이 사항 | 미국 골프 협회 주관으로 열리며, 골프 코스의 어려운 조건으로 유명



PGA 챔피언십(PGA Championship)

PGA 투어에서 참가자들이 경쟁하는 이 대회는 미국 내 다양한 골프 코스에서 5월 중순에 개최된다. 골프의 전성기를 대표하는 대회로, 역사와 전통이 함께 어우러진 특별한 순간을 선사한다.

개최지 | 미국 내 다양한 골프 코스에서 개최

개최 시기 | 5월 중순

특이 사항 | PGA of America 주최로, PGA 투어에서 참가자들이 경쟁



디 오픈 챔피언십(The Open Championship)

디 오픈은 전 세계 골프 대회 가장 먼저 'Open'이라는 타이틀을 사용했다. 앞서 설명한 미국 오픈(US Open)과 구분을 두기 위해 '브리티시 오픈'이라 부르기도 하나 정식 명칭은 '디 오픈'이다. 골프 역사상 최초로 개최된 메이저 대회로 자리 잡았으며, 다양한 국적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국제적인 경쟁이 펼쳐진다.

개최지 | 영국 내 다양한 링크스 코스

개최 시기 | 7월 중순

특이 사항 | 골프 역사상 최초로 개최된 메이저 대회로, 다양한 국적의 선수들이 참가



여자 5대 메이저 대회



ANA 인스퍼레이션(ANA Inspiration)

이전에는 크래프트 네비스코 챔피언십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매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미션 힐스 컨트리 클럽에서 개최된다. 매년 4월에 열리며, LPGA 시즌의 첫 번째 메이저 대회이다.

개최지 |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미션 힐스 컨트리 클럽 개최 시기 | 4월 중순
특이 사항 | 1988년부터, 우승자는 전통적으로 18번홀 그린 옆에 있는 연못에 뛰어드는 것으로 자신의 우승을 축하



미국 여자 오픈 챔피언십(U.S. Women's Open Championship)

미국 여자 오픈은 미국 골프 협회(USGA)가 주최하며, 매년 6월에 개최된다. 여성 골프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로, 가장 큰 상금을 제공한다.

개최지 | 미국 내 다양한 골프 코스에서 개최 개최 시기 | 6월 말 또는 7월 초
특이 사항 | 미국 여자 골프 협회 주최로 열리며, 여자 골프에서 가장 오래된 메이저 대회 중 하나



KPMG 여자 PGA 챔피언십(KPMG Women's PGA Championship)

이 대회는 PGA of America와 KPMG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여성 골프 선수들이 참가하는 가장 오래된 대회 중 하나이다. 매년 6월에 개최된다.

개최지 | 미국 내 다양한 골프 코스에서 개최 개최 시기 | 6월 중순
특이 사항 | LPGA 투어에서 개최되며, KPMG와의 협찬으로 알려져 있음



에비앙 챔피언십(The Evian Championship)

프랑스 에비앙 레뱅에서 개최되며, 2013년부터 메이저 대회로 인정받았다. 매년 7월에 개최되며, 유럽에서 유일한 LPGA 메이저 대회이다.

개최지 | 프랑스, 에비앙레뱅 골프 클럽 개최 시기 | 7월 중순
특이 사항 | 여자 골프 투어에서 가장 최근에 추가된 메이저 대회 중 하나



AIG 여자 브리티시 오픈(AIG Women's British Open)

영국에서 개최되며, 매년 8월에 열린다. 여성 골프 선수들이 참가하는 가장 중요한 대회 중 하나로, 보통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골프 코스 중 하나에서 열린다. 이들 대회는 여성 골프 선수들에게 가장 높은 명예와 상금을 제공하며, 세계 여성 골프의 최고 수준의 경기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개최지 | 영국 내 다양한 골프 코스에서 개최 개최 시기 | 8월 초
특이 사항 | 로열 앤드 에인션트 골프 클럽을 비롯한 다양한 영국 코스에서 열리는 여자 골프의 메이저 대회 중 하나

골프 선수들의 꿈, 그랜드 슬램

현대 골프에 접어들며 한 시즌에 4대 메이저 대회에서 모두 우승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한 시즌이 아닌 선수 활동을 하는 동안 4대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한 기록을 ‘커리어 그랜드 슬램’이라고 하는데,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는 것 역시 불가능에 가깝다고 평가된다.

PGA 역사상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유일한 선수는 바비 존스이다. 1930년도에 그가 달성한 기록이 유일무이한 기록이다. 당시 4대 메이저 대회는 US 아마추어, US 오픈, 디 오픈, 디 아마추어였는데, 바비 존스 외에는 아직까지 한 시즌에 4개 메이저 타이틀을 차지한 선수는 없으며 앞으로도 나오기 힘들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그나마 근접하게 기록한 선수는 골프의 황제, 타이거 우즈인데 2000년도에 US오픈, 디 오픈, PGA 챔피언십을 우승하고 이듬해인 2001년에 마스터스를 우승해 4개 메이저 대회에서 연속으로 우승했지만 해가 바뀌어 그랜드 슬램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바비 존스 이후로 진 사라젠, 게리 플레이어, 벤 호건, 잭 니클라우스, 타이거 우즈가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여자 프로 선수들 중에서는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기록한 선수는 총 7명이다. 현재 기준으로 메이저대회는 ‘ANA 인스퍼레이션’, ‘US 여자오픈’, ‘KPMG 우먼스 PGA 챔피언십’, ‘에비앙 챔피언십’, ‘AIG 여자 브리티시 오픈’으로 총 5개가 있으며 이중 4개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커리어 그랜드 슬램으로 인정된다. 현재까지 루이스 석스, 미키 라이트, 줄리 잉스터, 팻 브래드리, 캐리 웹, 애니카 소렌스탐, 박인비 선수가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라운딩의 계절, 봄! 성공을 위한 프로 골퍼들의 필수 전략!

봄이 찾아오면, 프로 골퍼들은 새로운 시즌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를 시작한다. 아래는 프로 골퍼들이 봄 시즌에 준비해야 할 주요 전략 지침서이다.

① 얇은 옷 여러 겹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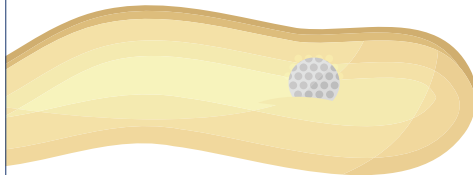


봄은 계절의 변화와 함께 기온이 상승하고 날씨가 안정되는 시기이다. 그러나 아침저녁으로 기온 차가 심하므로 1부터 라운드에

나가기 전 추워지고 오후에 접어들면서 기온이 상승하기 때문에 얇은 옷을 여러 겹 입고 벗을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나가기 전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부상을 방지해야 한다. 반대로 2부터 라운드에는 따뜻할 때 골프를 시작했다가 후반부터 급격히 추워지는데, 얇은 옷을 추가로 입을 수 있도록 준비해서 나가야 한다. 두꺼운 옷은 스윙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서 날씨에 따라 하나씩 벗거나 입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

② 모래가 많은 상황에서의 대처

봄 시즌에는 코스 상태가 크게 변화할 수 있다. 눈이 녹고 새로운 풀이 자라면서 잔디가 듕성듬성 나며, 모래가 잔뜩 뿌려져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그린 주변에 모래가 뿌려진 경우, 띄우는 어프로치보다 굴리는 어프로치가 훨씬 유리하다. S보다는 A나 P로 어프로치 하는 것이 확률이 높으며 그림을 짧게 잡고 공 위치를 평소보다 오른쪽에 두고 어프로치 해야 한다. 샷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잔디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 위치를 조금 더 오른쪽으로 두고 샷을 하면 정확한 임팩트를 구사할 수 있다.



③ 안개가 생겼을 때 샷하는 법



봄에는 기온 차이가 심해서 안개가 끼는 경우가 많다. 시야 확보가 되지 않으면 불안함에 미스샷이 나오게 된다. 안개가 졌을 경우에는 공 바로 앞에 목표점을 찍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안개에 목표물이 사라지기 때문에 집중도가 떨어지고 샷이 흔들리게 되므로 공 바로 앞에 작은 심리적 목표점을 찍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목표점을 찍고, 그 점만 보며 샷을 해주면 잃어버린 목표물 때문에 흐트러진 집중력을 다시 올릴 수 있다. 또 하나는 머릿속의 목표물에 대한 이미지를 그리는 것인데, 머릿속으로 그린의 핀이나 페어웨이의 아이피 지점 이미지를 구성하는 것만으로도 집중도와 방향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된다.

칼럼

아는 만큼 들린다 - 재밌는 클래식 이야기 : 슈만의 열렬한 사랑 고백 - 헌정(Widmung)

소프라노 강수정

출처: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슈만의 열렬한 사랑 고백 - 헌정(Widmung)

독일가곡

작곡가 로베르트 슈만 Robert Schumann (1810~1856)
시 프리드리히 뢰케르트 Friedrich Rückert (1788-1866)

이 곡은 슈만의 작품 Op.25 Myrten(미르테의 꽃)의 총 26곡의 독일가곡 중 첫 번째 곡입니다.

연인 클라라를 향한 열정적인 사랑을 담고 있는 곡 Myrten은 서양에서는 결혼식장에서 신부에게 바치는 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꽃은 화관이나 부케로 쓰인다고 하니 실제로 보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이 곡은 로베르트 슈만이 클라라와 결혼하기 전 날 클라라에게 바친 곡입니다. 가곡으로 먼저 연주 되다가 슈만의 절친인 프란츠 리스트(Franz Liszt)가 나중에 편곡해서 피아노 곡으로도 많이 연주된 유명한 곡입니다.

슈만은 이 곡에서 피아노가 순수하게 반주의 역할만을 하고 성악부가 주선율을 전달하도록 표현했습니다. 가사의 내용을 조금 더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이 곡 악보시작 부분에는 'innig, lebhaft'라고 적혀있는데, 이는 다정하게, 활기차게'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슈만의 감정을 호소하고 있는 듯 합니다.

노래가 끝나고 마지막 후주에서는 슈베르트의 아베마리아 선율이 들리는데, 신에게 감사하며 축복을 비는 평안함으로 표현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노래를 마친 다음 후주를 듣고 있노라면 눈을 감고 기도를 하게 되기





도 합니다. 연인을 위해 이토록 마음을 담은 이 곡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두 사람은 정말 힘들게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클라라는 슈만의 피아노 스승인 비크의 딸이었는데, 법정소송까지 갔을 정도로 클라라의 아버지는 슈만과 클라라의 만남을 강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왜 그토록 반대했을까요?

비크는 오랫동안 슈만을 가르치며 슈만의 사사로운 것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슈만이 피아노를 무리하게 치다 손을 다쳐 피아노도 못 치게 되어 딸을 맡기기엔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나이 또한 클라라보다 9살이나 많았으니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클라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인기 있는 아이돌처럼 예뻐고, 어릴 때부터 피아니스트로서 능력이 무척 뛰어났기에 아버지는 더욱 반대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열렬히 사랑했고 3년 간의 법정 싸움 뒤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슈만은 이 곡을 결혼 전날 클라라에게 선물합니다.

그녀만을 위한 곡이 완성이 된 것이죠.

‘그대는 나의 영혼, 그대는 나의 심장, 그대는 나의 세상, 난 그곳에서 살아요. 그대는 나의 하늘, 그곳에서 난 날아요’

슈만은 클라라와 결혼을 하는 날을 기다리며, 힘들지만 그녀를 포기하지 않고 26곡이나 썼다고 생각하니 참 소중한 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클라라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영화처럼 떠오르기도 합니다.

선물은 영어로 Present 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현재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바로 현재, 지금이 선물이라고 이야기 해주는 것 같습니다.

슈만이 힘든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하루하루 마음을 담아 정성껏 곡을 쓴 것 처럼, 우리도 지금이 조금 힘들더라도 소중한 자신을 위해 조금만 힘을 낸다면 나중에 가장 갖고 싶었던 선물을 자신에게 줄 수 있지 않을까요?

한 해 동안 수고한 자신을 생각하며 선물처럼 이 곡을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점 더 강화되는 마약류 관리

1. 왜 항정신성의약품이 마약류로 관리되는가?

2000년 7월 마약법, 대마관리법, 항정신성의약품 관리법이 통합되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항정신성의약품도 마약류로 취급받게 되었다. 항정신성의약품의 과다한 규제에 대해 여러 차례 이의 제기가 있었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마약류 관리법은 약물의 origin을 중시 여기기 때문이다. 특히, 히로뽕으로 알려져 있는 '메스암페타민'이 암페타민 계열로 마약이 아니라 항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항정신성의약품의 규제완화를 주장해도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 아편이나 몰핀 같은 opioid 약물이나 대마가 아닌 신종 마약들도 항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항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될 예정이다.

2018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가동되면서 모든 항정신성의약품의 처방내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보고되고 있다. 항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마약류의 허가사항 이외 사용을 하게 되면 현행법으로 잡힐 수밖에 없는 구조로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2023년 12월부터 매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마약류 처방내역을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톡을 발송한다고 하니 사용에 더욱 더 주의하여 불필요한 고생을 피하기 바란다.

또한 마약류의 의료인 셀프처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오남용심의위원회에도 자주 올라오고 있다. 수면제나 프로포폴, 식욕억제제의 자가처방은 피하도록 하자.

2. 수면제 처방 시 주의사항

- 1) 졸피뎀의 경우 오남용 주의 의약품으로 미성년자에게 처방하면 안 되며 4주 이내(28일) 처방해야 한다. 중복처방 시 오남용 의심을 받게 되므로 주의하자.
- 2) 트리아졸람은 21일 이내로 단기처방해야 한다.
- 3) 이 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의 경우 1회 처방당 30일 이내로 처방해야 하며, 총 치료기간은 3개월을 넘기지 않고 3개월 이상의 장기간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기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재평가한 후 처방해야 한다.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주요 내용)

- 불면증 치료 시 비약물적 치료를 우선하고, 그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약물 사용
- 성인 불면증 치료 목적으로 투약하며, 하루 10 mg(속효성), 12.5 mg(서방형) 초과 처방하지 않도록 한다.
- 남용과 의존성 위험 증가로, 사용 기간은 4주(28일) 이내여야 한다.



- 28일 단기 처방 후 추가 처방이 필요하다 판단될 시 재평가 후 추가 처방 가능하며, 이 경우도 28일 이내 단기처방 후 재평가한다.
- 18세 미만 소아 투여 금지
- 폐성심, 만성폐쇄성 폐질환, 기관지 천식 및 뇌혈관장애의 급성기 등 호흡 기능이 저하된 경우 투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3.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주의사항

지난 정권에서는 리라글루타이드 3.0 mg (삭센다) 주사를 강남주사라고 하여 단속하더니, 이번 정권에서는 항정신성 식욕억제제를 마약으로 취급하면서 단속하고 있다. 그 사이 삭센다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을 확대하여 1.5배 이상 성장세를 보였고, 결국 품귀현상이 다 시 발생했다. 마약류 식욕억제제 단속의 쓸쓸한 뒷면이다.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마진돌, 디에틸프로피온은 단기사용으로 허가받은 마약류 식욕억제제로, 4주 이내 단기 처방하며 최대 3개월 이내로 사용해야 한다. 3개월 이후에 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겠다.

마약류 식욕억제제 중에서는 펜터민/토피라메이트 복합제(큐시미아)가 장기처방에 대한 허가를 받은 상태이므로 장기간 사용이 필요하다면 장기사용이 가능한 약제를 사용하도록 하자. 오남용 의심으로 경찰에 고발되면 매우 귀찮은 일이 발생한다.

식약처의 실사가 이뤄지는 경우 진료기록에서 환자의 BMI로 정말 비만인지를 확인하게 된다. 미용 목적으로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사용하지 말도록 하자. 또한, 일정 기간 동안 처방한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총 개수를 문제 삼기 때문에 하루에 한 알만 먹는 약제를 처방하는 것이 그나마 안전하다.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사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법무부 장관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접하게 하면 구속수사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에게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하여 불필요한 고생을 하지 않도록 하자. 실제로 중학생에게 지방흡입술 후 식욕억제제를 처방한 의사가 지방흡입술이 아니라 식욕억제제 처방 때문에 식약처 단속대상이 된 바 있다.

마약류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주요 내용)

- 비약물적 치료(식사치료 등)를 우선적으로 시행
- 비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BMI 30 이상, 고혈압, 당뇨 등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는 BMI 27 이상) (미용 목적 처방·사용 금지)

- 4주 이내 단기처방, 최대 3개월 이내 사용, 단기처방 후 목표체중 감량이 있고 추가처방이 필요하다 판단될 시 재평가 후 증량

4. 마약류 투약내역 조회 서비스 의무화법과 마약류 쇼핑 방지 정보망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3년 5월 25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마약류 취급업자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회 경고, 2회 20만 원, 3회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약류 투약내역은 마약류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데, 확인한 기록이 모두 남아 손쉽게 확인여부를 체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즉,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해 처방내역이 전수 조사되고, 마약류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내역이 전수조사되기 때문에 CCTV 앞에서 신호위반을 하는 수준으로 손쉽게 적발해 낼 수 있는 사항이다.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되며, 환자의 투약이력 확인 대상 마약류는 펜타닐에 한정될 예정이나 매년 그렇듯 대상약물이 확대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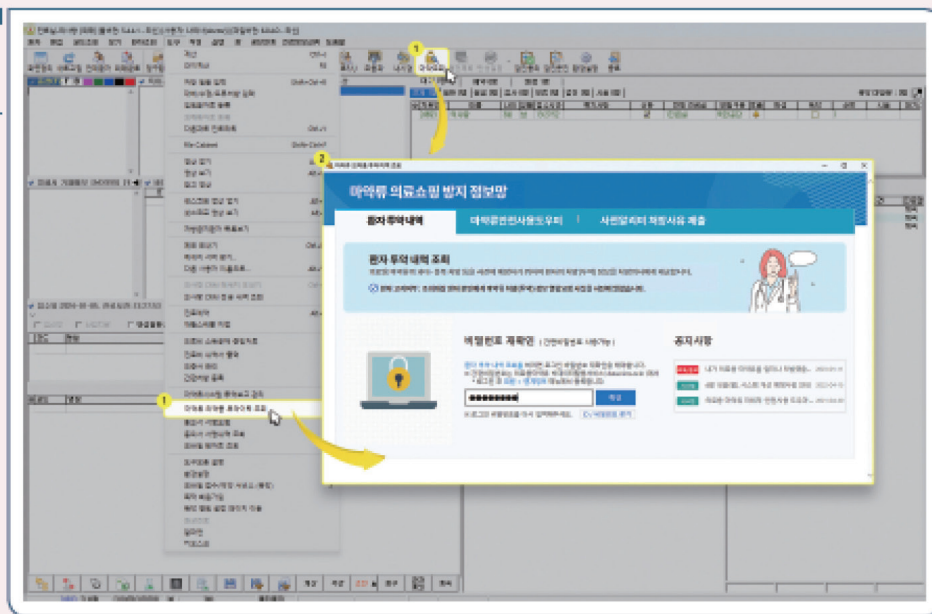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홈페이지(<https://data.nims.or.kr>)에서 회원가입을 해



야 하며, 의사람에 의사개인인증키를 등록하면 홈페이지를 거치지 않고 단축버튼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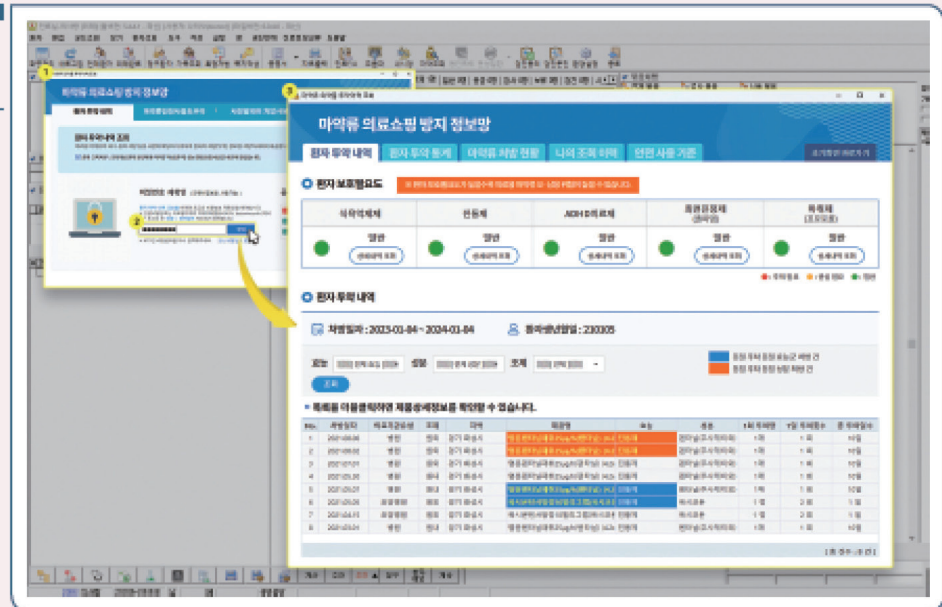
의사람 프로그램 화면 예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4 제2항을 보면 마약류 통합정보 제공가능에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약내역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며, 단서 조항으로 '이 경우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환자에게 열람요청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마약류 소빙방지 정보망을 통해 환자의 투약이력을 열람하는 경우, 환자에게 열람요청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하기 때문에 DUR처럼 자동으로 조회되도록 만들 수는 없다. 법 개정 전까지는 환자고지 여부를 클릭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현재의 방식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법 시행 전까지는 진료차트에서 자동팝업기능을 개발하겠다고 하였으니 기다려 보자.



의사랑 프로그램 화면 예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환자의 과거 1년간 투약이력을 조회해 볼 수 있으며, 당연히 하지만 오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투약하면 안 된다.

**쉽고 빠른
청구 길잡이**

자신 만만 보험청구

김기범 · 김종률 · 김태빈 · 이동길 · 이창현 · 최윤종 지음

한 권으로 끝내는 보험청구의 모든 것!

초보 개원의
필수 입문서

청구
담당자도
쉽게 활용

식약제로!를
목표로

출처 - 자신만만 보험청구
(김기범, 김종률, 김태빈,
이동길, 이창현, 최윤종)



공지사항

1. 한센병 조기진단을 위한 적극적 검사 협조: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우리나라의 한센병 관리는 선진국 수준의 퇴치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외국인을 중심으로 매년 신규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한센병 신환자는 총 35명으로, 연평균 3.5명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2019년 이후 외국인 환자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4년에도 외국인 신환자 5명이 발생하였습니다.

한센병은 나균(*Mycobacterium leprae*)에 의해 발병하는 만성 감염병으로, 피부와 말초신경에 병변을 일으켜 조기 진단이 늦어질 경우 장애를 동반할 수 있어 신속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근 의료 현장에서 한센병에 대한 관심이 저하되면서, 2020~2024년 한센병 주요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 중 61.1%(11/18명)가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한 사례로 나타났습니다.

한센병의 주요 증상으로는 감각이 저하된 피부 병변, 결절, 구진, 반점, 발진 등이 있으며, 말초신경 비후, 지각신경 마비, 통증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부 증상 및 신경 손상이 있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의료진의 세심한 관찰과 신속한 진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한센병 다발성 국가에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적극적인 검사가 필요하며, 의료기관에서는 한센병이 의심되는 환자가 내원하면 검사를 의뢰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한국한센복지협회 연구원**(☎ 031-452-7091~4, 경기도 의왕시 원곡로 59)으로 검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WHO 발표, 한센병 다발성(Global priority) 23개국」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콩고,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네팔, 소말리아, 탄자니아, 마다가스카, 스리랑카, 필리핀, 앙골라, 남수단, 미얀마, 코디부아르, 수단, 이집트, 코모로, 키리바시, 마이크로네시아

*자료원: Global leprosy update, 2023(WHO)

<한센병 초기 주요증상>



2. 2025년도 영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공지사항 4436)

1) 2025년 적정성 평가항목

구분(총 36항목)			평가항목
계속 (35)	일차의료 및 만성질환 관리(9)	만성질환 (6)	①고혈압·당뇨병, ②천식, ③만성폐쇄성폐질환, ④결핵, ⑤혈액투석, ⑥류마티스관절염
		약제(3)	⑦~⑨약제급여(항생제, 주사제, 약품목수)
	급성기 치료 (21)	심뇌혈관 질환(4)	⑩관상동맥우회술, ⑪급성기뇌졸중, ⑫~⑬허혈성심질환 (급성심근경색증,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¹⁾
		암질환(5)	⑭대장암, ⑮폐암, ⑯위암, ⑰유방암, ⑱간암
		일반질(3)	⑲병원표준화사망비, ⑳위험도표준화재입원비, ㉑입원일수
		기타(9)	㉒수혈, ㉓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18개 수술) ²⁾ , ㉔마취, ㉕폐렴, ㉖중환자실, ㉗신생아중환자실, ㉘환자경험, ㉙중소병원 ¹⁾ , ㉚영상검사
	정신건강(4)		㉛의료급여 정신과, ㉜정신건강 입원영역, ㉝우울증 외래, ㉞치매 ¹⁾
	장기요양(1)		㉟요양병원 입원급여
신규 (1)	일차의료 및 만성질환 관리	만성질환 (1)	슬관절치환술 ³⁾
예비	예비평가		고관절치환술

주 1. 향후 평가방향 협의 중

2. 18개 수술(대장수술, 담낭수술, 고관절치환술, 슬관절치환술, 개두술, 자궁적출술, 제왕절개술, 전립선
절제술, 유방수술, 척추수술, 견부수술, 후두수술, 허니아수술, 폐절제술, 골절수술, 혈관수술,
인공심박동기삽입술, 총수절제술)

3. 본 평가 도입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의결 후 세부시행계획(안) 등 논의 중

※ 정책적 환경 및 평가수행 여건 고려하여 평가항목(예비평가 포함)과 추진일정 일부 변경 가능



2) 2025년 평가항목별 주요 추진 일정

구분		평가항목		평가 차수	추진일정			
					계획공개	대상기간	조사표 수집 ^{주)}	결과공개
일차 의료 및 만성 질환 관리 (9)	만성 질환 (6)	① 고혈압·당뇨병	2주기	2차	'23.12.	'24.3.~'25.2.		'25.4분기
				3차	'24.12.	'25.3.~'26.2.		'26.4분기
		② 천식	11차		'24.1.~'24.12.		'25.4분기	
			12차	'24.10.	'25.1.~'25.12.		'26.4분기	
			13차	'25.10.	'26.1.~'26.12.		'27.4분기	
		③ 만성폐쇄성폐질환	10차		'24.1.~'24.12.		'25.4분기	
			11차	'24.10.	'25.1.~'25.12.		'26.4분기	
			12차	'25.10.	'26.1.~'26.12.		'27.4분기	
		④ 결핵	7차	'23.10.	'24.1.~'24.6.		'25.4분기	
			8차	'24.10.	'25.1.~'25.6.		'26.4분기	
			9차	'25.10.	'26.1.~'26.6.		'27.4분기	
		⑤ 혈액투석	2주기	2차	'25.7.	'25.10.~'26.3.	'26.9.~'26.10.	'27.4분기
		⑥ 류마티스관절염	1차	'23.11.	'24.4.~'24.9.	'25.11.~'25.12.	'26.3분기	
	약제 (3)	⑦~⑨ 약제급여(3항목)	57차	'23.10.	'24.1.~'24.12.		'25.3분기	
			58차	'24.10.	'25.1.~'25.12.		'26.3분기	
급성기 치료 (21)	심뇌 혈관 질환 (4)	⑩ 관상동맥우회술	10차	'23.7.	'23.10.~'25.9.	'26.3.	'26.4분기	
			11차	'25.7.	'25.10.~'27.9.	'28.3.	'28.4분기	
		⑪ 급성기뇌졸중	11차	'24.7.	'24.10.~'25.3.	'25.9.~'25.10.	'26.3분기	
		⑫ 급성심근경색증		※ 향후 평가방향 협의 중				
		⑬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암 질 환 (5)	⑭ 대장암 ⑮ 폐암 ⑯ 위암 ⑰ 유방암 ⑱ 간암	2주기	2차	'25.4.	'25.7.~'26.6.	'26.하반기	'27.2분기
				2차	'25.7.	'25.10.~'26.9.	'27.상반기	'27.3분기
				2차	'25.4.	'25.7.~'26.6.	'26.하반기	'27.2분기
				1차	'22.10.	'23.1.~'23.12.	'24.8.~'24.9.	'25.3분기
				1차	'22.10.	'23.1.~'23.12.	'24.9.~'24.10.	'25.3분기
	일 반 질 (3)	⑲ 병원표준화사망비	7차		'24.1.~'24.12.		'25.4분기	
			8차	'24.10.	'25.1.~'25.12.		'26.4분기	
		⑳ 위험도표준화재입원비	7차		'24.1.~'24.12.		'25.4분기	
			8차	'24.10.	'25.1.~'25.12.		'26.4분기	
		㉑ 입원일수	1차	'23.1.	'23.4.~'24.3.		'25.1분기	
	기 타 (9)	㉒ 수혈		3차	'25.5.	'25.7.~'25.12.	'26.6.	'27.1분기
		㉓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2주기	3차	'25.1.	'25.4.~'25.6.	'26.2.~'26.3.	'27.2분기

구분		평가항목		평가 차수	추진일정			
					계획공개	대상기간	조사표 수집 ^{주)}	결과공개
		㉔ 마취		4차	'25.4.	'25.7.~'25.9.	'26.3.~'26.4.	'26.4분기
		㉕ 폐렴		6차	'23.7.	'23.10.~'24.3.	'24.10.	'25.3분기
				7차	'25.7.	'25.10.~'26.3.	'26.9.	'27.3분기
		㉖ 중환자실		5차	'25.4.	'25.7.~'25.12.	'26.6.~'26.7.	'26.4분기
		㉗ 신생아중환자실		4차	'24.10.	'25.1.~'25.6.	'25.11.~'25.12.	'26.2분기
		㉘ 환자경험		5차	'25.4	'25.8.~'25.12.	'25.8.~'25.12.	'26.3분기
		㉙ 중소병원		※ 향후 평가방향 협의 중				
정신건강 (4)	㉚ 의료급여 정신과 2주기		3차	'23.5.	'23.8.~'24.1.	'24.7.	'25.2분기	
			4차	'25.10.	'26.1.~'26.6.	'26.11.	'27.4분기	
	㉛ 정신건강 입원영역		3차	'23.5.	'23.8.~'24.1.	'24.7.	'25.2분기	
			4차	'25.10.	'26.1.~'26.6.	'26.11.	'27.4분기	
	㉜ 우울증 외래		3차	'25.7.	'25.10.~'26.3.		'27.4분기	
	㉝ 치매		※ 향후 평가방향 협의 중					
	장기요양 (1)	㉞ 요양병원 입원급여 2주기		5차	'23.4.	'23.7.~'23.12.		'25.2분기
6차				'24.4.	'24.7.~'24.12.		'26.2분기	
7차				'25.4.	'25.7.~'25.12.		'27.2분기	

주. 음영은 청구서 기반

■ '25년 계획·결과 공개

※ 평가항목별 세부 추진내용은 '붙임 2) 평가항목별 추진계획(안) 및 평가지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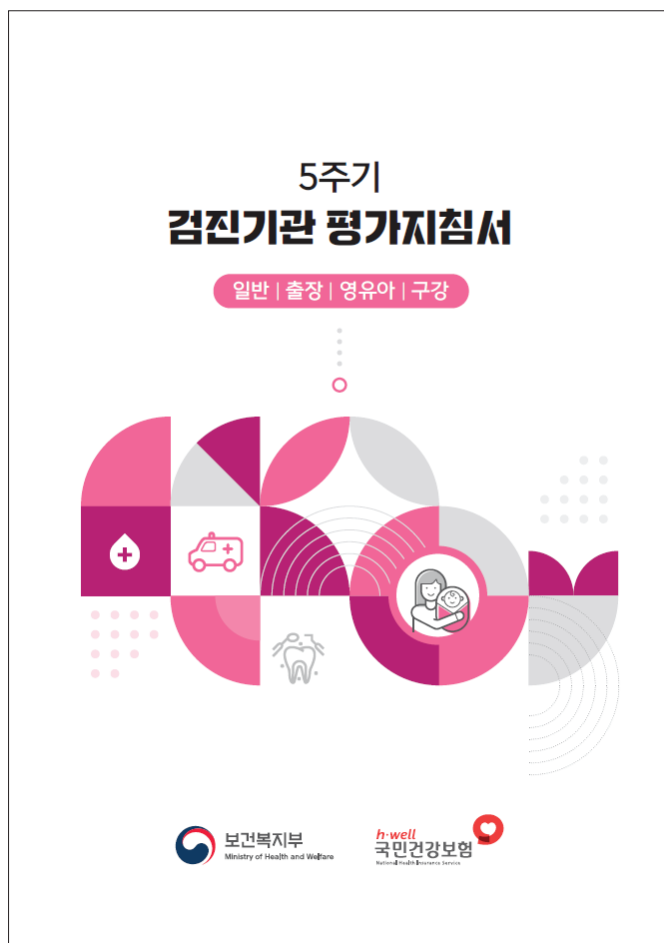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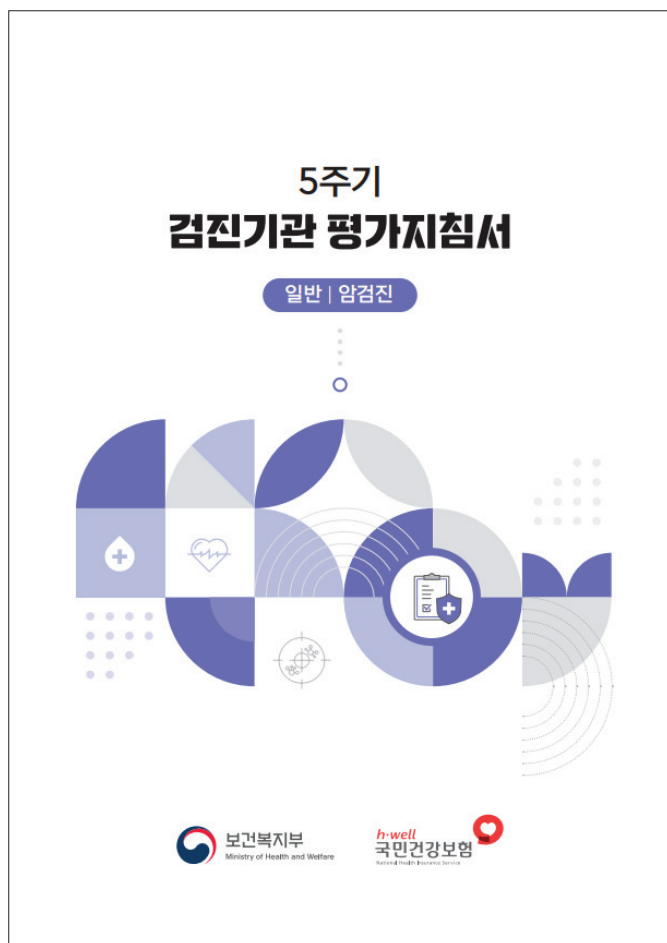
3. 긴급도입 결핵치료제(스트렙토마이신, 액상 이소니아지드) 사용범위 확대

질병관리청은 결핵치료제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국내에서 생산이 중단된 스트렙토마이신과 액상 이소니아지드를 긴급 도입하여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폐기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 긴급 도입 의약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참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요 규제 기관의 허가사항과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2025년 2월 4일에 사용 범위 확대를 인정하였습니다.

품목명(제조사)	성분명	변경 전	변경 후
Streptomycin Injection 1g_TBC (Taiwan Biotech Company, 대만)	스트렙토마이신	다제내성 결핵치료	① 다제내성결핵치료 ② <u>결핵 및 결핵균 감염에 따른 질병*</u> (다른 항결핵제와 병용하거나, 독성·내성 등으로 다른 약제 선택이 어려운 경우) * 결핵균 감염증, 결핵성 뇌척수막염, 급성 출혈성 속립결핵, 인두 및 후두결핵, 기관 및 기관지 결핵성 궤양, 삼출성 폐결핵, 궤양성장결핵, 결핵성 복막염, 결핵성 심내막염, 눈결핵
PDP Isoniazid Oral Solution (PENDOPHARM Division of Pharmascience Inc., 캐나다)	이소니아지드	결핵 (예방)치료	① <u>결핵예방(단독사용)</u> ② <u>폐결핵 및 폐외결핵 치료(다른 항결핵제와 병용)</u>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 사용대상은 기존과 동일 - 결핵예방치료가 필요한 만 0~7세 소아 - 액상형 복용이 필요한 자(정확한 용량 복용이 필요한 자, 정제를 삼키기 어려운 자 등에 한하여 연령 미제한) * 단, 소아 치료에 우선적 사용 </div>

4. 5주기 검진기관 평가지침 안내

- 1) 평가지침서 다운로드 : 대한내과의사회 공지사항 4436
- 2) 평가 대상 및 제출 안내
 - 가) 대상: 5주기 검진기관 평가 대상 기관
 - 나) 제출 항목: 서면 조사, 자가 웹 평가표 입력 및 근거자료 제출
 - 다) 제출 기한: 2025년 4월 25일(금) 18시까지
 - 라) 제출 방법: 건강관리포털 (sis.nhis.or.kr)에 입력





5. 2025년도 지역환자안전센터 사업 추진계획 (공지사항 4459)

1) 사업 개요

- 가) 사업명: 2025년도 지역환자안전센터
- 나) 주관기관: 대한의사협회(지역환자안전센터)
- 다)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 라) 사업근거: 「환자안전법」 제8조의3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8호

2) 사업 추진배경 및 목표

규모가 작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은 환자안전 제도 및 법령에 대한 접근성과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의료기관의 환자안전법 및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의료기관 중심의 환자안전 문화를 조성하여 국내 환자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3) 주요 사업 내용

- 가) 환자안전 인식도 제고 및 보고 활성화: 의료기관 인식 조사, 간소화된 보고서 배포, 우수 사례 공모전 개최
- 나) 환자안전 교육활동: 대한의사협회 네트워크 활용 교육, 학술대회 및 전문가 과정 워크숍 운영
- 다) 환자안전 홍보활동: 홍보자료 및 사례분석 보고서 공유, 심포지엄 개최, 기관지(의협신문) 활용 홍보
- 라) 환자안전 협력체계 구축: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 지역사회 환자안전문화 조성

4) 2025년도 지역환자안전센터 사업 세부 추진일정

사업 내용		추진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사업계약 및 체결, 착수보고회							
사업수행	환자안전사고 접수 및 보고						
	학술대회 회원 교육,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오프라인)						
	중앙환자안전센터에서 공유된 안내문, 홍보자료 및 교육자료 배포(온라인)						
	환자안전사고 집중 보고기간 우수 사례 공모전						
	환자안전 인식도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진행						
	환자안전 전문가 과정 워크숍						
	환자안전 심포지엄						
	지역환자안전센터 운영위원회						
	지역환자안전센터 자문단						
	중앙 및 지역환자안전센터 정기교류회						
최종보고회, 사업 평가 및 검수							

6. 2023년 (2주기 1차)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결과보고

2023년 (2주기 1차)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결과보고

1. 평가목적

- 요양기관의 의료서비스 질관리 강화 및 국민건강증진 도모

2. 평가대상

- (대상기간) 2023년 1~6월(6개월) 진료분
- (대상기관) 2023년 1월 1일 기준 혈액투석기 보유기관으로 혈액투석 청구가 발생한 의원급이상 요양 기관
* 2023년 6월말 기준 폐업기관 제외
- (대상환자) 만18세 이상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
 - (외래) 동일 요양기관 외래에서 혈액투석을 주 2회(월 8회) 이상 실시
 - (입원) 동일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혈액투석을 월 8회 이상 실시
- (평가대상) 1,153개소, 43,664건

3. 평가기준 및 방법

- (평가지표) 총 9개(평가지표 6개, 모니터링지표 3개)

구분		지표명
평가지표 (6)	구조(3)	① 의사 인력 질 지표 -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비율* - 의사 1인당 1일 평균 투석건수
		② 간호사 인력 질 지표 - 2년 이상 혈액투석 경력을 가진 간호사 비율* - 간호사 1인당 1일 평균 투석건수
		③ 수질검사 실시주기 충족여부*
	과정(1)	④ 정기검사 실시주기 충족률*
	결과(2)	⑤ 혈액투석 적절도 충족률*
		⑥ 칼슘×인 충족률*
모니터링 지표(3)	구조(2)	⑦ B형 간염 환자용 격리혈액투석기 최소 보유대수 충족여부*
		⑧ 혈액투석실 응급장비 보유여부*
	결과(1)	⑨ Hb(헤모글로빈) 10g/dl 미만인 환자 비율

* 높을수록 좋은 지표



- **(평가자료)**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조사표(기관/환자), 의료기관 현황 신고자료, 신뢰도 점검 의무기록 등
- **(평가방법)**
 - 평가지표별(전체/동일종별/동일지역) 결과 산출
 - 평가지표별 표준화 점수와 가중치 적용하여 종합점수 산출 및 평가등급 부여

4. 평가결과

- **(종합점수)** 전체평균 82.4점으로 전차대비 2.1점 감소

(단위: 점)

구분	2주기 1차	1주기 7차	증감
전체	82.4	84.5	-2.1
상급종합병원	95.8	97.5	-1.7
종합병원	85.6	87.5	-1.9
병원	76.7	78.3	-1.6
요양병원	76.4	78.1	-1.7
의원	82.0	84.1	-2.1

※ 주. 외래 기준

- **(등급 현황)** 972개소 중 2등급 361개소(37.1%)로 가장 많음
 - 전차대비 1등급 4.8%p, 2등급 3.6%p 감소

(단위: 개소, %, %p)

구분	2주기 1차	1주기 7차	증감
전체	972 (100.0)	894 (100.0)	+78 (-)
1등급	110 (11.3)	144 (16.1)	-34 (-4.8)
2등급	361 (37.1)	364 (40.7)	-3 (-3.6)
3등급	289 (29.7)	220 (24.6)	+69 (+5.1)
4등급	139 (14.3)	108 (12.1)	+31 (+2.2)
5등급	73 (7.5)	58 (6.5)	+15 (+1.0)

※ 주. 기관의 분모가 5건 미만은 제외하여 산출

5. 가감지급

○ (지급대상) 2023년 1~6월 혈액투석 관련 외래진료분

구분	건강보험	의료급여
항목	진찰료, 혈액투석 1회당 수가(O7020), 혈액투석 재료대 수가(O7021), 투석액(약효분류기호 341)	혈액투석 1회당 포괄정액(O9992, O9993), 혈액투석 재료대 수가(O7021), 투석액(약효분류기호 341)
산출식	항목별 합계금액 X (100-본인부담률)	항목별 합계금액 - 본인부담금

○ (지급기준)

- (가감률) $\pm 2\%$
- (가산) 1등급이면서 상위 10% 기관, (감산) 종합점수 67점 미만 기관

○ (가감지급 결과)

- (가산) 110개소(평가대상의 10.5%)
 - 가산금액 11억 9,968만 원, 최소 128만 원~최대 2,816만 원
- (감산) 99개소(평가대상의 9.4%)
 - 감산금액 8억 5,491만 원, 최소 139만 원~최대 3,334만 원

구분		가산	감산
기관수		110기관 (평가대상의 10.5%)	99기관 (평가대상의 9.4%)
전체 금액		1,199,680,560원	854,905,250원
기관별 금액	최소	1,278,680원	1,393,430원
	최대	28,159,030원	33,344,990원



[첨부]

〈 지표별 평가결과 현황 〉

(단위: %, 건, %p)

구분		지표명	1주기 7차 (2021년) (A)	2주기 1차(2023년)						증감 (B-A)
				전체 (B)	상급 종합	종합 병원	병원 주1	요양 병원 주2	의원	
평 가 지 표	구 조	① 의사 인력 질 지표 －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비율*	73.8	75.0	98.3	85.7	54.2	36.3	83.9	+1.2
		－ 의사 1인당 1일 평균 투석건수	26.0	25.4	15.4	26.1	21.9	18.4	28.9	-0.6
		② 간호사 인력 질 지표 － 2년 이상 혈액투석 경력을 가진 간호사 비율*	74.7	76.3	75.6	71.3	76.3	75.7	79.2	+1.6
		－ 간호사 1인당 1일 평균 투석건수	5.3	4.9	4.2	4.8	5.3	4.9	5.0	-0.4
		③ 수질검사 실시주기 충족여부*	91.0	94.7	97.8	97.6	90.9	92.9	94.5	+3.7
	과 정	④ 정기검사 실시주기 충족률*	98.6	99.0	99.9	99.4	99.0	98.6	98.7	+0.4
	결 과	⑤ 혈액투석 적절도 충족률*	94.9	94.7	99.3	96.7	92.5	91.9	93.7	-0.2
		⑥ 칼슘×인 충족률*	84.0	86.7	97.0	90.4	87.2	89.1	83.4	+2.7
모 니 터 링 지 표	구 조	⑦ B형 간염 환자용 격리혈액투석기 최소 보유대수 충족여부*	100.0	99.7	97.8	99.6	100.0	99.3	100.0	-0.3
		⑧ 혈액투석실 응급장비 보유여부*	95.1	95.6	100.0	99.2	91.2	88.0	96.8	+0.5
	결 과	⑨ Hb(헤모글로빈) 10g/dl 미만인 환자 비율	11.4	13.1	14.5	12.6	12.0	16.7	12.8	+1.7

주1. 병원 종별은 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포함

2. 외래기준

* 높을수록 좋은 지표

7. 에볼라 의심환자 내원시 주의사항 및 신고 안내 (공지사항 4469)

1. 배경 및 목적

질병관리청은 최근 우간다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이 유행함에 따라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의료진을 대상으로 해외여행력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내 유입 대비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료기관이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환자 진료 시 신속하고 안전한 의료대응을 할 수 있도록 '에볼라바이러스병 의료진 안내서'를 배포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1) 의심환자 신고

가)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가 검역관리지역(우간다 등) 방문력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

나) 검역관리지역: 발생국(우간다), 확산우려국(남수단, 르완다,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직항편 운행국(에티오피아)

발열, 심한두통, 피로감, 근육통, 설사, 복통, 발진, 원인불명 출혈 등 두 아형(자이레주, 수단주)에서 매우 유사
다만 흉통은 자이레주에서는 흔하지 않으나 수단주에서는 나타남
초기 증상은 발열, 기침 등 인플루엔자 감염 증상과 유사하나 중증 진행 시 신장, 간 손상 및 출혈 증상 동반
수단주가 자이레주에 비교하여 다소 경미

2) 신고 방법 : 관할보건소로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eid.kdca.go.kr>) 내 '감염병웹신고'를 통하여 웹 신고(*) 또는 팩스 신고(**)

*웹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팩스를 통한 신고 후 관할 보건소에 접수 여부 유선으로 확인

**① 신고 후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관할 보건소장에게 유선으로 고지하며,

② 질병관리청으로 신고하는 경우 종합상황실(043-719-7979) 이용

3) 진료 시 주의사항

가) 표준주의, 접촉주의, 비말주의 준수, 에어로졸 발생 시 공기주의 준수

나) 개인위생(손 씻기) 철저 준수

다)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 접촉 금지

라) 의심환자 진료 시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필수

마) 진료 후 철저한 소독 실시



시범사업, 의료법·고시(급여기준) 신설/변경

마약류 자가 처방 금지 및 관리 (공지사항 444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포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2011호)에 따라, 마약류취급 의료업자가 자신에게 프로포폴(Propofol)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 근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1014, 2025년 2월 6일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2025년 1월 24일자 안내문(대의협 제0625-11687호, 붙임#2)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자가 처방에 대해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령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의 개정을 통해 의사 본인에 의한 투약 및 처방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이제 프로포폴을 포함한 해당 마약류를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 자가 처방 금지 대상 약물로 프로포폴을 우선 지정할 예정이며, 향후 오남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상 의약품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정 법률 시행 전 실태 파악을 위해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해 보고받은 투약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의료인이 본인에게 처방한 사례가 확인되었음을 밝혔습니다.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마약류 본인 처방이 확인된 의사는 4,883명, 해당 의료기관은 4,147개소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프로포폴 등 마약류의 자가 처방이 법적으로 금지될 수 있음을 의료진에게 안내하고, 처방 시스템 및 내부 점검 체계를 강화하여 자가 처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마약류 취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진료를 받아 처방·투약을 진행하도록 하여, 마약류 오남용 위험성을 예방하고 임상적 객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포폴의 자가 처방과 관련하여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는 환자 주민등록번호와 처방 의사의 면허번호만 확인할 수 있어 실시간 자가 처방 여부 점검이 어려운 상황이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는 의사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사후 점검은 가능하나, 실시간 예방이나 경고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마약류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소속 의료진에게 관련 내용을 숙지시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https://www.nims.or.kr>)을 통한 보고 의무가 철저히 준수되도록 당부하는 바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처분사항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중독성·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해당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p><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p> <p>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1.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p>

C형 간염 확진 검사비 지원

1) 국가건강검진에서의 C형 간염 항체 검사와 그 의미

국가건강검진에서는 C형 간염 항체 검사를 실시합니다. 과거에 C형 간염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았거나 현재 감염 중인 경우 모두 항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항체 양성 결과만으로는 현재의 유병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유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진 검사가 필요합니다.

2) C형 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및 신청 방법

질병관리청에서는 국가건강검진에서 56세 결과 C형 간염 항체 양성 판정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확진검사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가까운 의료기관(의원, 병원; 상급 종합병원은 제외)에 방문하여 확진 검사를 받으신 후, 검사비 확인이 가능한 진료비 상세 내역을 첨부하여 보건소 또는 정부24 내 보조금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에 한해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가) 신청 방법은 온라인(www.gov.kr)에서 "보조금24 전체 혜택 C형 간염 확진 검사비 지원"을 검색하거나, 인근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나) 신청 기한은 국가건강검진 수검 다음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온라인 신청 안내

1. 정부24(<https://www.gov.kr>) 접속





2. 상단 보조금24탭 – 전체 혜택 클릭

정부24 MyGOV 민원서비스 **보조금24** 정책정보 고객센터

보조금24
나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부혜택을 확인할 수 있어요.

보조금24 홈
보조금24 대표 서비스, 나의 혜택 요약 정보 및 추천 서비스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전체 혜택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1만여 개의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어요.

나의 혜택
맞춤안내 조회 버튼만 누르면 나와 가족이 신청 가능한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어요.

간편 찾기
나에게 맞는 상황을 선택하면 선택한 조건에 맞는 서비스를 찾아볼 수 있어요.

보조금24 란
서비스 소개, 이용방법,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3.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검색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조건 검색**

혜택 바로가기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4. 제목 하단 '바로 신청하기' 클릭

중앙부처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국가건강검진(56세)으로 발견된 C형간염 항체 양성자에 대한 확진검사비 지원을 통한 검진 효과 제고 및 치료 유도

바로 신청하기 >

5. 회원 로그인 혹은 비회원 본인 인증 및 정보 제공 동의 진행

A modal window titled '안내' (Notice) with a close button (X). The main text reads: '회원/비회원 로그인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Member/non-member login application service is available). Below this, a grey box contains the text: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Even if you apply as a non-member, some services require simple authentication or a certificate (joint, financial) for electronic signature). At the bottom, there are two buttons: '비회원 신청하기' (Apply as non-member) and '회원 신청하기' (Apply as member).

6. 신청인 정보 입력

신청인

성명	본인인증한 성명으로 자동입력	
연락처(휴대전화) (필수)	000-0000-0000 결과 안내 받을 휴대전화 번호	
계좌정보 (필수)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지원금 수령 계좌(본인 계좌만 가능)	

본인 명의만 가능. 입력하신 계좌 정보로 지급됩니다.

조회

계좌 본인 검증 버튼(필수)



7. 의료 기관 및 이용 금액 입력

이용의료기관

확진(RNA) 검사 진행한 의료기관

확진(RNA)검사를 받은 의료기관명

기관명 (필수)

이용금액

확진(RNA) 검사 비용

진료비 상세내역서상 진료비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필수)

숫자만 입력 가능합니다

진료비상세내역서에 기재된 진료비와 확진검사비에 한함

구비서류

확진검사 내용이 포함된 진료비 상세내역서 파일 첨부

진료비 납입확인서, 단순 영수증 불가

진료비 상세내역 (필수)

① 파일 첨부 안내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비 상세내역(검사비 확인이 가능한 영수증)

* 카드 전표나 소득 공제용 '진료비납입확인서'는 불가함에 유의



파일찾기 버튼을 이용해 파일 첨부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험사업

1. 추진배경

기존 입국자 중심의 직접 대면 검역에서 출입국자 검역정보 제공 및 신고·검사의 서비스 중심 검역체계로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영국 등 해외 사례를 반영하여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공항만에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 시험사업 개요

시험운영 기관은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김포공항지소와 국립제주검역소 제주공항지소이며, 운영 기간은 2025년 2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주말 제외)입니다. 본 사업은 검역법 제15조에 따른 검역감염병 감염 확인 검사와 제20조에 따라 검역감염병 외의 검사도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니다. 대상자는 공항만에서 해외입국한 유증상자 중 검역감염병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서비스 희망자로, 별도의 독립된 공간(검역조사실, 격리관찰실 등)에서 진행되며, 자가 검체(비강 도말) 또는 검역관이 채취하는 비인두 도말 검체를 이용하게 됩니다.

3. 검사 결과 관리 방안

①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양성 판정 시

검역소는 질병대응센터로부터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해당 결과를 핸드폰 문자로 발송합니다. 인플루엔자의 경우 초기증상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약제 투여 시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신속한 결과 안내가 필수이며, 신종병원체분석과에서는 양성 검체를 대상으로 유전체 분석을 수행합니다.

② 검역감염병(예: AI) 양성 판정 시

검역소는 검역법 제15조(검역조치)에 따라 양성 결과를 지자체와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합니다. 이후, 지자체에서는 시·도 및 시·군·구 차원에서 심층 역학조사 및 접촉자 조사를 실시하며, 질병대응센터에서는 보건소 사례 보고 접수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합니다. 양성 확인 시, 잔여 검체는 본청의 신종병원체분석과(또는 진단분석과, 제주출장소)로 즉시 송부되어 유전체 분석을 수행합니다.

③ 음성 및 기타 양성 판정 시

검역소는 질병대응센터로부터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결과를 핸드폰 문자로 발송하며, 필요시 신종병원체분석과에서 양성 검체 대상 유전체 분석을 수행합니다.

구분	주요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항만 해외입국자 대상으로 유증상자 중 1급 검역감염병의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자 중 희망자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역소(검역대 등) 	
검사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코로나19, 인플루엔자 A/B 3종 등 	
검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PCR 및 양성 검체 유전체 분석 	
검사결과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사 결과(AI, COVID-19,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B) 음성 또는 양성에 대해 문자 또는 이메일로 본인에게 통보 유전자 검출 검사(PCR) 양성확인서 요청시 검역소에서 통보 의료기관 방문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가능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양성시 보건소 통보 및 관리 	<p>1급 검역감염병 역학적연관성 있는 경우, 분류 후 검사 및 격리</p> <p>유증상자 → 유증상자통합조사 → 감염병 의심자</p> <p>1급 검역감염병 역학적연관성 있는 경우, 분류 후 검사 및 격리</p> <p>1급 검역감염병 역학적연관성 없는 경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후 귀가</p> <p>검사, 격리, 귀가</p>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2차년도 참여 의사(의료기관) 공모 안내 (공지사항 4452)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사회 거주 치매환자가 전문적인 의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치료·관리받을 수 있도록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시행 중이며, 2025년 7월부터 참여 지역을 추가 확대할 예정입니다.

- 1) 공모 대상: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2차년도 참여 의사(의료기관)
- 2) 공모 기간: 2025. 1. 24.(금) ~ 2025. 3. 21.(금)
1차년도 시범지역 내 추가 의사 모집은 2025. 2. 28.(금)까지 진행
- 3) 접수 방법: 온라인 신청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www.nid.or.kr) → 지원 → 치매관리주치의 → 신청
- 4) 사업 기간: 2025년 7월 ~ 2026년 6월
- 5) 선정 결과 안내 : 지역 선정(2025년 4월), 참여 의사 선정(2025년 7월),
1차년도 시범지역 내 추가 의사는 자격 요건 확인 후 2025년 4월 선정 예정
- 6) 문의처 : 중앙치매센터 치매사례관리팀(전화 02-6260-3151)

대한내과의사회 및 관련학회 일정

구분	학회	장소	일정	
1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평의원회	서울롯데	3월 8일	토요일
2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춘계학술대회	서울롯데	3월 9일	일요일
3	경기도내과의사회 학술대회	서울롯데	3월 15일	토요일
4	한국건강검진학회 평의원회	서울롯데	3월 22일	토요일
5	한국건강검진학회 춘계학술대회	서울롯데	3월 23일	일요일
6	대한내과의사회 대의원총회	서울롯데	4월 12일	토요일
7	대한내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	서울롯데	4월 13일	일요일
8	한국초음파학회 평의원회	서울롯데	4월 19일	토요일
9	한국초음파학회 춘계학술대회	서울롯데	4월 20일	일요일
10	대한임상순환기학회 평의원회	서울롯데	5월 10일	토요일
11	대한임상순환기학회 춘계학술대회	서울롯데	5월 11일	일요일
12	대한내과의사회 하계워크숍	미정	6월 14일-15일(가안)	토, 일요일
13	서울 시내과의사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서울롯데	6월 22일	일요일
14	대한내과의사회 백신 심포지움	SC컨벤션	8월 24일	일요일
15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추계학술대회	서울롯데	9월 7일	일요일
16	한국초음파학회 추계학술대회	서울롯데	9월 28일	일요일
17	대한내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서울롯데	10월 19일	일요일
18	대한임상순환기학회 추계학술대회	서울롯데	10월 26일	일요일
19	한국건강검진학회 추계학술대회	서울롯데	11월 23일	일요일



대한내과의사회 제15회 전국 임원 workshop

2025년 대한내과의사회 15회 전국 임원 workshop

■ 일 시 : 2025년 2월 8일(토)~9일(일)

■ 장 소 : 광명 테이크호텔(아이리스홀 외)

17:40 ~ 18:00	Registration & Reception			
18:00 ~ 18:10	Welcome Ceremony		대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	
Lecture				
Time	Title	Guest	Place	
18:10 ~ 18:50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쟁점 토론(질의응답)	서민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좌장 : 경기도내과의사회 김태빈 회장	
18:50 ~ 19:30			아이리스홀	
Harmony				
Time	Title	Guest	Place	
19:30 ~ 19:45		제품설명회 1.		
19:45 ~ 20:00		제품설명회 2.		
20:00 ~		Dinner 및 뒷풀이		
2일자				
Time	Title	Guest	Place	
			좌장 : 신창록 자문위원장	
07:00 ~ 08:00	조식		호텔 조식	
08:00 ~ 08:50	의정사태, 필수의료 패키지 문제점 등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원장)	아이리스홀	
08:50 ~ 09:00	coffee break 및 그룹디스커션 이동			
" Group Discussion "				
09:00 ~ 10:20	1. 의료정책 (의료전달체계 올바른 방향)	좌장 : 김철부회장	발표자 : 강한욱이사	아이리스홀
	2. 보험 (2024 환산지수 연구용역 보고)	좌장 : 최윤종부회장	발표자 : 김기병 보험정책단 위원	스튜디오2
	3. 국가검진 (1인 내과의 현재와 미래 - 내과의원 검진 활성화 방안)	좌장 : 조연희부회장	발표자 : 이창현이사	스튜디오5
	4. 학술 및 교육 (Hot topics 2025)	좌장 : 유용규부회장	발표자 : 조윤주이사	스튜디오4
	5. 정보통신 (메거진 개선방향, 홈페이지 개편)	좌장 : 이상준부회장	발표자 : 이석종이사	스튜디오3
시도회장단회의				
10:20 ~ 10:30	coffee break 및 회의 장소 이동			별관 회의실
10:30 ~ 12:10	Presentation	각 분과 조장		아이리스홀
12:10 ~ 13:00	Lunch			
13:00 ~	Closing Remarks	Chairman		아이리스홀



2025년 2월 8일(토)부터 9일(일)까지 광명 테이크호텔에서 제15회 대한내과의사회 워크숍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의료계가 직면한 핵심 현안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필수의료 패키지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며, 내과의사들이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워크숍 첫날에는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쟁점」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환자 편의성 증대와 보험사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의료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연에서는 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반대하는 이유와 민간회사 및 시민단체가 이를 우려하는 배경이 설명되었다. 반면, 보험사와 금융위원회는 청구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일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찬성하고 있다. 또한,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가 위헌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도 함께 이루어졌다. 강의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안덕선 원장이 「의정 사태, 필수의료 패키지 문제점」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에서는 국내외 의료제도를 비교하며, 2024년 도입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분석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특히, 영국,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 주요 국가의 의사 수급 결정 방식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의료계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였다. 또한, 의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파탄 의료현안협의체'의 역할과 현재 의료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참석자들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이 의료 서비스의 질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며,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이후 진행된 분임 토의에서는 의료정책, 보험, 국가검진, 학술 및 교육, 정보통신 등 다섯 개의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내과의사들이 직접 현안을 논의했다. 의료정책 분과에서는 의료전달체계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보험 분과에서는 2024년 환산지수 연구용역 보고를 기반으로 적정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국가검진 분과에서는 1인 내과의 현재와 미래를 전망하며, 내과의원의 검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학술 및 교육 분과에서는 최신 임상 지식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Hot Topics 2025를 중심으로 의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신 정보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보통신 분과에서는 내과매거진 발전 방향과 홈페이지 개편 방안이 논의되었다.

워크숍의 마지막 세션에서는 각 분임별 토의 결과를 종합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대한내과의사회의 향후 실행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전략과 해결책은 앞으로 대한내과 의사회의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침이 될 전망이다.

한국건강검진학회 제9회 춘계학술대회

학술대회

일 시 2025년 3월 23일(일) 09:00

장 소 롯데호텔 서울

참석대상 각 과 전공의 및 전문의(비회원 참석 가능)

평 점 대한의사협회 5평점,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2평점, 한국초음파학회 2평점

등록마감 2025년 3월 20일(목) 정오

등록비

구분	등록비		핸즈온	
	평생회원	평생회원 외	개원의/전문의	전공의/군요관
사전등록비	무료	5만원	상복부/갑상선 15만원	상복부/갑상선 5만원
			유방 8만원	유방 3만원
현장등록비	1만원	6만원	-	-

* 평생회비 10만원을 납부하신 경우에만 등록비 무료이며, 그외 홈페이지만 가입하신 회원 또는 비회원은 사전등록비 5만원입니다.

* 핸드온은 선착순 등록입니다.

평생회원 등록안내 평생회비 : 10만원

↳ 계좌안내 : 기업은행 377-126987-04032 한국건강검진학회

- 입금인은 등록인과 동일하게 실명으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금인이 틀릴 경우 정확한 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등록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등록 후 3일내 미입금일 경우 무통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통합 사회 : 한국건강검진학회 이창현 총무이사

ROOM A. 일반검진

Time	Title	Speaker
Session 1.		좌장: 최봉기 (한국건강검진학회 고문) 신창록 (한국건강검진학회 고문)
09:00-09:30	2025년 검진검진 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김태희 (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관리부)
09:30-10:00	5주기 검진평가 주의사항 및 행정처분으로부터 안전한 검진기관 운영을 위한 매뉴얼	이석종 (한국건강검진학회)
Opening Ceremony		
10:00-10:15	인사말	조연희 (한국건강검진학회 회장)
		이정용 (대한내과의사회 회장)
10:15-10:30	Coffee Break	

ROOM A. 일반검진

Session 2.		좌장: 김명훈 (대정충남세종내과의사회 회장) 임환섭 (한국건강검진학회 부회장)
10:30-11:00	인지 장애의 치료	양영순 (순천향의대)
11:00-11:30	확대되는 골다공증검사, 잘 치료하기	서기원 (순천향의대)
11:30-12:00	확대되는 정신건강검진, 잘 상담하기	나영석 (맑은마음정신의학과)
12:00-12:30	C형간염검진 도입! 잘 진단하고 치료하기	이윤빈 (서울의대)
12:30-13:30	Luncheon Symposium	
Session 3.		좌장: 류재춘 (대한임상순환기학회 회장) 함정식 (인천시내과의사회 회장)
13:30-14:00	놓치면 안되는 고지혈증 검진 주의사항 및 효과적인 환자 관리법	이창현 (한국건강검진학회)
14:00-14:30	홀터, 검진 등 모바일 지속 심전도 에서 발생하는 이상에 대해서	노태호 (바오로내과)
14:30-15:00	GLP1-RA 입문 : 비만과 당뇨 정복하기	최영주 (대한임상순환기학회)
15:00-15:30	경동맥초음파 기법과 임상적 의의	권지은 (대한임상순환기학회)

ROOM B. 암 검진

Time	Title	Speaker
ROOM B. 암 검진		
Session 2.		좌장: 고병성 (충북내과외사회 회장) 이찬화 (한국건강검진학회 부회장)
10:30-11:00	5주기 검진평가 자료제출 유방암검진 최종점검	김진희 (연세의대)
11:00-11:30	5주기 검진평가 자료제출, 간암검진 최종점검	이서희 (한국초음파학회)
11:30-12:00	자궁암검진과 HPV 예방의 중요성	배재만 (한양의대)
12:00-12:30	신장암과 방광암검진 총정리	박병관 (성균관의대)
12:30-13:30	Luncheon Symposium	
Session 3.		좌장: 곽경근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회장) 김태빈 (경기도내과외사회 회장)
13:30-14:00	2025 달라지는 검진내시경 청구 완벽 정리	최대한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14:00-14:30	검진과 연결되는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의 기술	오태훈 (한국건강검진학회)
14:30-15:00	항혈전제 사용 환자의 안전한 내시경	김민석 (한국건강검진학회)
15:00-15:30	5주기 검진 평가 - 자료제출 내시경분야 최종점검	남준열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한국건강검진학회-한국초음파학회 찾아가는 핸드온 프로그램

강의시간	대주제	세부주제	연자명	정원	비고
12:00-15:00	상복부	상복부 A	이서희 (한국초음파학회)	7인	전공의평점포함
		상복부 B	서준영 (한국초음파학회)	7인	전공의평점포함
	갑상선	갑상선 경부	이규철 (한국초음파학회)	7인	전공의평점포함
12:00-13:25	유방	스캔법	노미리비 (연세의대)	7인	전공의평점미포함
13:35-15:00		조직검사	노미리비 (연세의대)	7인	전공의평점미포함



대한내과의사회 제17회 춘계학술대회

학술대회

일시 2025년 4월 13일 (일) 오전 8시30분

장소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2F)

연수평점 대한의사협회 5점 / 내과학회 내과전문의평생교육 5점

생명나눔 헌혈캠페인 안내

춘계학술대회 당일 사랑을 실천하는 작은 행동으로 "생명나눔 헌혈캠페인"을 진행하오니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강의 다시보기 서비스 안내

* 학술대회 참석 회원께는 홈페이지내 학술행사 VOD실에서 강의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 드립니다.

(*서비스 기간: 25년 4월21일~5월 4일까지)

등록비

등록구분	정회원 (2024년 회비 납부 회원)	전공의(2024년 퇴직자 포함)/ 내과 군의관, 전임의 (*학회 참석시 기프티콘 1만원 증정)	회비 미납회원/비회원
사전등록	10,000원	10,000원	40,000원
현장등록	20,000원	20,000원	50,000원

● 입금계좌번호 안내 : 하나은행 395-910012-01404 (예금주 : 대한내과의사회)

※ 송금인은 등록인과 동일하게 실명으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송금인이 틀릴 경우 등록 신청시 입금자명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Time	Title	Speaker	Title	Speaker
08:00~08:30	등록 및 부스 관람			
	ROOM A	사회: (오전) 박재형 학술이사 (오후) 조윤주 학술이사	ROOM B	사회: (오전) 강한욱 보험이사 (오후) 한재용 학술이사
	session 1.	경남내과의사회 박양훈 회장 대한내과의사회 윤용선 부회장	session 1.	대구경북내과의사회 서영진 회장 대한내과의사회 은수훈 부회장
08:30~08:50	호흡곤란의 순환기내과적 접근	이창훈 (중앙보호병원 심장내과)	진단부터 치료까지 간편한 C형간염 관리 전략	성필수(가톨릭의대 소화기내과)
08:50~08:55	질의응답		질의응답	
08:55~09:15	오늘 본 기침 환자가 COPD는 아닐까요?	오진영(서울늘편한내과)	대반주사로 간기능 개선 가능한가?	나선화(필립의료재단)
09:15~09:20	질의응답		질의응답	
09:20~09:40	Revalued combination therapy for T2DM patients	홍준화(을지의대 내분비내과)	WE GO BEyond Weight loss - 세마글루타이드의 실제 처방법 및 주의사항	이창현(대한비만학회 개원이사)
09:40~09:45	질의응답		질의응답	
09:45~10:05	만성콩팥병 단계별 치료 전략으로 Finerenone의 역할	정지용(가천의대 신장내과)	신장의 적, 이상지질혈증을 포함 한 만성질환부터 식생활습관까지	박세훈(서울의대 신장내과)
10:05~10:10	질의응답		질의응답	
10:10~10:30	Coffee Break		Coffee Break	
10:30~10:45	개회사		대한내과의사회 회장 이정용	
	축사		대한내과학회 이사장 박중원	
	축사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택우	
	축사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박근태	
	session 2.	대한내과학회 김재규 회장 대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	session 2.	경기도내과의사회 김태빈 회장 대한내과의사회 김철 부회장
10:45~11:05	헬 리 코 박 터 제 균 치료 2025 업데이트 - 전국 레지스트리 중간 결과와 최신 치료 경향	양효준(성균관의대 소화기내과)	SGLT2i; Beyond Glucose Lowering Effects	최한석(동국의대 내분비내과)
11:05~11:10	질의응답		질의응답	
11:10~11:30	Functional Dyspepsia recent update	김정환(건국의대 소화기내과)	2형 당뇨병 환자에서 연속혈당 적용 사례 - 연속혈당으로 당뇨병 환자의 삶을 투명하다	조재형(가톨릭의대 내분비내과)
11:30~11:35	질의응답		질의응답	



Time	Title	Speaker	Title	Speaker
11:35~11:55	식이설명서를 이용한 과민성 장증후군의 환자 설명	김용성 (좋은숨김희정내과)	Endocrine Incidentaloma	임정수(연세원주의대 내분비내과)
11:55~12:00	질의응답		질의응답	
12:00~13:00	Lunch Luncheon Symposium		Lunch Luncheon Symposium	
	session 3.		대한내과의사회 보험정책단 강창원 단장	
13:00~14:00	(통합강의) 의료 현장에서 전략적 사고		한순구(연세대학교 경제학과)	
14:00~14:10	Coffee Break		Coffee Break	
	session 4.	전북내과의사회 이태관 회장 대한내과의사회 최윤중 부회장	session 4.	강원도내과의사회 이정열 회장 대한내과의사회 하상철 부회장
14:10~14:30	항암 중인 환자를 진료실에서 만났을 때	강민수(서울의대 혈액종양내과)	내과의를사를 위한 면역학(백신면역을 중심으로)	이재갑(한림의대 감염내과)
14:30~14:35	질의응답		질의응답	
14:35~14:55	두드러기는 알레르기일까?	김미애(차의대 호흡기알레르기내과)	내과진료실 백신의 전통적 1순위: 업그레이드 된 PCV 공부	김태형(순천향의대 감염내과)
14:55~15:00	질의응답		질의응답	
15:00~15:20	류마티스 질환이 의심될 때 시행하는 검사	이승원(한양내과의원)	대상포진, 그리고 예방의 최신지견	윤영경(고려의대 감염내과)
15:20~15:25	질의응답		질의응답	
15:25~	폐회			

지역의사회 소개

- 부산시내과의사회가 추천하는 부산의 매력

대한민국 제 2의 도시 부산은 예전에는 조선, 철강, 목재, 신발, 향만등의 산업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도시 외곽으로 산업이 옮겨감에 따라 문화, 관광과 축제의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5-6월에는 광안리 어방축제와 해운대 부산 모래 축제가, 10-11월에는 부산국제영화제와 불꽃 축제가 유명하고 그 외에도 사소한 축제들이 많습니다. 새롭게 문화의 도시로 바뀌고 있는 부산에 떠오르는 새로운 명소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근 문을 연 아르떼뮤지엄은 선박 수리공장을 개조하여 조성한 디지털 기술과 예술을 결합한 작품을 선보이는 미디어 아트 전시관으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공간이 넓어 혼잡하지 않으니 천천히 작품을 즐기며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대형 카페 피아크는 부산항만을 보면서 카페, 베이커리, 식당을 이용할 수 있어 인기가 치솟는 명소입니다. 또한 멀지 않은 곳에 태종대가 있고 태종대 입구의 자갈마당에서는 맛있는 조개구이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아르떼뮤지엄 부산 kr.artemuseum.com/BUSAN

피아크 www.p-ark.kr

태종대 자갈마당(부산 영도구 감지해변길 81)

문화의 도시로 변모하기 위한 새로운 명소로는 올해 6월 20일 개관 예정인 부산 최초 클래식 전용 공연장인 부산 콘서트 홀입니다. 정명훈 지휘자가 예술감독을 맡아 개관 페스티벌을 할 예정이며 조성진, 선우예권, 손열음 뿐 아니라 라스칼라 오케스트라, 런던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로열 콘서트헤바우 오케스트라 등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클래식 교류의 도시로 나아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콘서트 홀에서 멀지 않는 곳에 아직도 짜장면, 밀면이 3000원하는 부산의 맛집 명소 부전시장이 있으며, 부산 젊은이들의 성지 전포카페거리가 있어 재밌는 볼거리와 먹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부산을 오시는 분들은 꼭 한번 먹고 가신다는 돼지국밥으로 미술랭 빽그루망에 오른 안목도 있으니 한번 들르셔도 좋을 듯합니다.

부산콘서트홀 classicbusan.busan.go.kr

전포카페거리, 부전시장, 안목 서면점(부산 부산진구 서면로 10)



회원 안내문

[2025년 요양기관(병·의원)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 사전예고] 관련 안내 (3월 시행)

자율점검제도는 병·의원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의원에 통보하고, 병·의원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하여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병·의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합니다.

올해 3월부터 시행하는 대상 항목은 총 7가지이며 그 중 내과와 주로 관련된 항목은 2가지로 “생검용 FORCEP 사용 후 절제술용 FORCEP으로 청구”, “혈액투석수가에 포함된 드레싱을 단순처치로 청구”의 항목들을 특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추가 대상 항목 및 자세한 사항은 본 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2030번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내과의사회

<https://physician.or.kr/4.0/main/index.php>

성명서

마약류 관리자의 의무 배치를 규정한 법률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

2025년 1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그 규모에 상관없이 마약류 관리자로서 약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특히 3인 이하의 소규모 의료기관에 큰 재정적, 운영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의료기관들은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마약류 관리자를 고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어 결국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나 접근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을 취급하는 의사들은 이미 의약품을 관리하는 체계 하에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을 통해 마약류 관리 약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의사의 검증된 관리 능력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처사이며 단지 불필요한 규제 강화로 볼 수밖에 없다. 4인 이상이 근무하는 중대형 의료기관은 마약류 관리자를 두고 있지만, 소규모의 의료기관도 구축된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NIMS)하에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법적 요구사항은 과중한 부담을 안겨주고 실행 가능성도 작다고 판단된다. 더군다나 마약류 관리자를 새로 채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무 배치된 마약류 관리자의 업무가 환자들에게 필요한 일부 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지연시킬 우려가 크다. 예를 들어, 진정 내시경 검사를 받고자 하는 수검자들의 대기시간이 늘어나 불편을 겪을 수 있고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효율성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 마약류 취급에 대한 관리 체계가 이미 잘 구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마약류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반드시 효과적인 관리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적절한 규제를 받는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와 기존의 검증된 관리 체계만으로도 충분히 안전한 관리가 가능하다면, 새로운 법안은 오히려 비효율적인 인력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 마약류의 관리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NIMS)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되고 있고,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DUR)와의 연계로 처방 내역에 대한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마약류를 처방하는 의사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보건소의 현장 점검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향정신성 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기관에까지 마약류 관리자를 배치해야 한다는 문구도 있으나 이미 NIMS를 통해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 배치 의무화를 확대하는 것은 실질적인 필요성도 부족하고,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만 안겨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행정적,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이고, 이미 잘 구축되어 관리되고 있는 시스템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에 대한내과의사회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문제가 없는 마약류 관리 시스템을 뒤흔드는 이번 개정안 발의는 재고가 필요하며, 차라리 기존의 시스템을 더욱 보완하고 강화하는 정책으로 바꿔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5년 1월 8일
대한내과의사회



묶음별 수가 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 성명서

대한내과의사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묶음별 수가’ 도입과 관련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묶음별 수가’ 제도가 일차 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정부의 논리에 대해 그 취지에는 일부 공감할 수 있겠으나, 그 방식과 세부 내용이 자극의 의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한다.

첫째, ‘묶음별 수가’는 환자 맞춤형 치료를 저해한다.

의료는 환자 개개인의 건강 상태와 상황에 맞춰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묶음별 수가’ 제도는 환자의 진료 과정에서 상담, 진단, 치료 등의 필요성을 일률적인 패키지로 묶어 수가를 정하기 때문에, 의료진이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심각하게 제한한다. 이는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맞춤형 진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이 제도는 분만, 인프라와 산업기반이 초도화될 정도의 포괄수가제(DRG)에 다름없는 사실상 포괄적인 세트 수가제도에 불과하며, 적정 수가 보상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일차의료의 질 향상이 무관할 것으로 오히려 의료 현장에서 환자 및 의료진의 만족도를 더욱 떨어뜨릴 수 있다. 환자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치료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묶음별 수가’ 제도는 이를 간과하여 환자의 의료진 간 신뢰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일차 의료기관의 과중한 진료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이미 일차 의료기관은 고령화 사회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환자별 진료 시간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75세 이상 고령자 진료에는 소통과 관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묶음별 수가’ 제도가 도입되면, 의료진은 진료 건수를 늘리고 패키지에 포함된 치료 항목을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의료의 질적 향상보다는 양적 성과를 우선시하는 구조로 변질될 위험이 크며, 환자의 건강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료진은 환자 개개인의 건강 상태를 충분히 고려할 시간이 부족해질 것이며, 이는 환자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것이다.

셋째, 의료기관의 재정적 압박을 강화한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각 의료 행위에 대해 정해진 수가가 책정되어 병원의 수입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한다. 그러나 ‘묶음별 수가’는 진료 항목을 패키지 형태로 묶어 수가를 정하기 때문에, 복잡한 치료나 추가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여지가 크다. 이는 일차 의료기관에 재정적 압박을 가해,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의료기관이 고비용 환자를 피하거나 최소한의 치료만 제공하려는 경향을 촉진할 수 있어, 의료 서비스의 질이 심각히 저하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정부가 과거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설익은 의료정책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진행된 사례를 볼 때, 이번 제도 또한 의료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의료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본 제도는 일차 의료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추진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료 서비스의 심각한 질적 저하와 의료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특히 정책 추진 방식마저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일차 의료기관의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의료계와의 협력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 것이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이번 ‘뭍음 수가제’ 정책에 대해 반드시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환자들에게 더욱 나은 진료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025년 1월 16일

대한내과의사회



퀴즈

Q 내과매거진 3월호에 언급된 최신 정책·공지·시범사업 등을 정리한 문장들입니다. 이 중 '틀린 것'을 1개 고르시오.

- ① 한센병이 의심되는 환자가 내원할 경우, 한국한센복지협회 연구원으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C형 간염 항체 검사에서 양성인 사람은 확진검사를 받을 때, 1회에 한해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③ 에볼라 의심환자 진료 시에는 표준주의(손 위생), 접촉주의, 비말주의 등을 준수하고, 의심 시 24시간 이내 관할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 ④ 마약류 취급의료업자는 2025년 2월 7일부터 프로포폴 등 특정 마약류를 본인에게 처방·투약할 수 없다.
- 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2차년도 참여 의사(의료기관) 공모는 2025년 3월 21일까지이며,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사업이 진행된다.


〈 정답 제출 〉

- 1. 대한내과의사회 이메일 kpa@physician.or.kr 로 성명, 소속, 연락처, 정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2. 2024년도 대한내과의사회 연회비를 납부하신 분에 한하여 퀴즈 참여가 가능합니다.
- 3. 퀴즈를 맞추신 선착순 열 명에게 스타벅스 상품권(1만원)을 보내드립니다.

〈 지난 호 (1월호) 퀴즈 정답과 해설 〉

- ③ 칸디다 식도염. 치료제로 양성자펌프억제제와 가장 관련성이 적은 진단명은 칸디다 식도염입니다.
 ① 약제 유발성 식도염 ② 박리성 식도염 ④ 호산구성 식도염 ⑤ 보초용종(역류식도염)은 치료로서 양성
 자펌프억제제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호 (1월호) 퀴즈 정답자**
 : 이*준 (서울아산탐내과)

대한내과의사회 월간 내과 Magazine

RENEWAL 2025.3(vol 5.)

2025년 3월 17일 인쇄

2025년 3월 19일 발행

발행처 | 대한내과의사회

내과 매거진 발행위원회 발행인 : 이정용

발행위원 : 이상준, 조승철, 이승원, 이석종,
이창현, 이태인, 박낙순

인쇄처 | MYONE (주)마이원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5-9 마이원타워

TEL. 02-2263-8412 FAX. 02-2263-8413

www.my-one.co.kr

월간 내과 *Magazine*

RENEWAL 2025.3(vol 5.)



대한내과의사회
KOREAN PHYSICIANS' ASSOCIATION